

Temptation Just Isn't Worth It: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February 22, 2024

Aloha MPC 'Ohana,

As you know, I'm supposed to be careful about what I eat (no gluten) because I have Celiac's Disease. And most of the time, I am indeed careful.

But a couple weeks ago, I allowed myself to get a little careless one day, and I ate something which I shouldn't have. And, to make a long story short, I became quite ill for about 24 hours. It was actually the first time I've ever had what they call a full-blown "gluten reaction," and I was miserable.

People sometimes ask me, "Are you ever tempted to cheat and to eat something with just a little gluten in it?" My answer to that question used to be, "Yes, sometimes it's very tempting – especially if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I really used to enjoy eating."

But after becoming so ill a few weeks ago, I can now say that any and all temptation is gone. Because I learned (the hard way) that no matter how yummy something may look, eating it (if it has gluten in it) just isn't worth the pain and suffering which will surely follow.

Now, hopefully, my saying all of this isn't TMI, but this is why I mention it. Because, food aside, I've been thinking lately about all the other things that sometimes tempt me. In particular, I've been thinking about the times when I'm tempted to sin.

To be honest, I'm as adept as anyone else at making excuses for my sins. "Oh, it was no big deal. It's not like I murdered someone. It was just a momentary lapse. Et cetera."

But I wonder if I would think that way if I really stopped to understand how devastating the consequences of even one of my "momentary lapses" might really be – to myself or to someone else.

There are lots of good, sound, Biblical ways to define what sin is. But without going into all of them, it seems to me that one thing which makes sin sin is the pain and suffering which it causes.

And so, if I remember that, and if I really let myself feel the pain which comes when I do wrong, then I think I'll be more vigilant about what I do (or don't do), and maybe I'll also be much less susceptible to temptation itself. Because there really are some things which cause such pain that they just aren't worth it – ever.

Me ke aloha,  
Pastor Ron

유혹은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아시다시피 저는 셀리악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글루텐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어느 날 조금 방심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저는 약 24시간 동안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실제로 본격적인 "글루텐 반응"이라고 불리는 현상을 겪은 것은 처음이었고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에게 "당신은 속임수를 써서 글루텐이 조금 들어간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가끔은 매우 유혹적입니다. 특히 제가 정말 즐겨 먹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유혹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아무리 맛있어 보이더라도 그것을 먹는 것(글루텐이 들어있다면)은 반드시 뒤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어려운 방법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이 TMI가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제쳐두고 최근에 가끔 나를 유혹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죄의 유혹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죄를 변명하는 데 다른 누구 못지않게 능숙합니다.

"아, 별 일 아니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등등."

하지만 내가 정말로 멈춰서 나의 "순간적 실수" 중 하나가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선하고 건전하며 성경적인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도 죄를 죄로 만드는 한 가지는 그것이 초래하는 고통과 괴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오는 고통을 정말로 느끼게 된다면, 나는 내가 하는 일(또는 하지 않는 일)에 대해 더 경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혹 자체에 훨씬 덜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럴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고통을 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